이천이십오년 | 가을호(통권 27호)
www.gyeoremal.or.kr

겨레말

| 겨레말 초대석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우리의 동행은 마음을 나누는 일

| 기획특집 | 언어의 신세계
우리 시대에 기록해야 할 새로운 말들

남녘말 북녘말
남북의 사자성어와 속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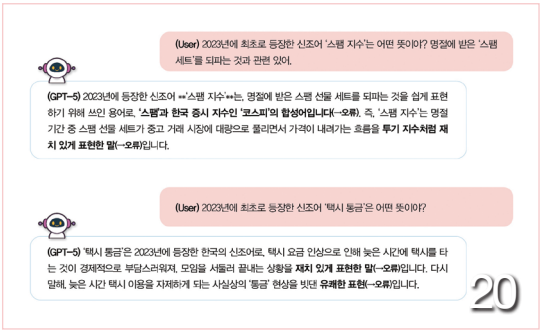


목차

겨레말 | 이천이십오년 | 가을호(통권 27호)









02 겨레의 창
사회문화교류로 남북 관계 재구성해야 · 정일영

06 겨레말 초대석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우리의 동행은 마음을 나누는 일

12 심상
지리산의 쉼표, 삶의 문장 · 강건모

기획특집 | **언어의 신세계**

16 **우리 시대에 기록해야 할 새로운 말들**

18 **칼럼 1** · 남길임
신어의 신세계: 언어의 창조성과 역동성

22 **칼럼 2** · 황은하
끊임없이 자라는 겨레말: 북 · 재외동포 사회의 신어

26 **칼럼 3** · 정유라
요즘 말을 이해하는 두 가지 패턴

겨레말 탐구생활

30 남녘말 북녘말
남북의 사자성어와 속담 · 오영철

34 뜻풀이 깁고 더하기
'마술사'와 '요술사' · 권혜진

38 우리말 보물찾기
사람을 어떻게 보고 · 안상학

일러두기 | 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업회'로, 남북공동편찬회의는 '공동회의'로 통일한다.
② 본지에 게재된 필자의 견해는 사업회 입장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공동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여 민족어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공동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사업회 홈페이지(gyeoremal.or.kr)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45



46


47

42 이 계절의 겨레말
마중물 · 김강출
장마 · 박샛별
추석달 · 남초록
조가비떡 · 이길재

44 겨레말 사람들
강준석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감사
공동회의 재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

46 겨레말 소식

48 겨레말 낱말 풀이



멀리서 본 능선은 긴 문장 같고, 사람은 쉼표 같다

능선을 오르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쉼표 같다. 긴 문장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부호. 멈춘 듯 보이지만 자기만의 문장을 이어가는 주체다. 산 아래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다른 풍경 속으로 들어가며, 그 쉼표는 비로소 문장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호흡이다. (본문 14쪽)

글·사진 제공: 강건모

편집인 **모순영** 책임편집 **윤석정** 편집 **김미경** 교정 **홍서현** 펴낸날 **2025년 10월 1일**
펴낸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홈페이지 **http://www.gyeoremal.or.kr** 전자우편 **gyeoremal@gyeoremal.or.kr** 디자인 **해든디앤피** 인쇄 **(주)태광P&D**

사회문화교류로 남북 관계 재구성해야

글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세계인의 공감을 사고 있다. 김구 선생님이 꿈꿨던 문화강국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그런데 갑자기 '케데헌'으로 글을 시작한 이유는 마음을 잇는 사회문화의 힘, 남북 관계에도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얼어붙어 있던 남북 관계가 아주 '조금씩' 녹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긴장 완화를 위한 남측의 선조치에 북한이 소리 없이 응답한 결과이다. 대남, 대북 방송으로 일상을 빼앗겼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새로운 남북 관계를 설계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길은 여전히 멀어만 보인다.

비상계엄의 상흔과 새 정부의 출범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폭거였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은 한반도 분단 체제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내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 2020년대에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려 했던 반헌법적 폭거는 우리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부터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으며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정질서를 유지했다. 늘 반짝이는 야광봉과 함께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계엄과 탄핵정국을 이겨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반도 평화와 한 몸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결로 점철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금씩 접경지역의 긴장이 해소되고 있다. 여전히 공식적인 대화나 소통은 없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에 북한이 호응하는 조용한 상호 조응이 이뤄지고 있다. 계엄 이전까지 고조됐던 긴장 상황을 생각하면 위기 상황은 넘겼다는 안도감마저 든다. 이제 새 정부가 어떤 남북 관계를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남북 관계 구상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 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자며 북측의 화답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남북 관계와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 보자. 국정기획위원회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5대 국정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1.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제도화
2.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3.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4.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5. 한반도 평화 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

> 정치도, 경제도, 남북에 놓인 마음의 거리를 줄여주지 못했다. 이제 통일은 당위가 아니며 우리 미래세대는 통일을 부정적인 미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남북의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취임식에서 새로운 남북 관계 구상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즉 남북의 평화 공존, 평화 경제와 공동 성장, 그리고 국민주권의 대북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 공존', 그리고 '공동 성장'을 위한 '국민주권'의 대북 정책 추진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구상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냉랭하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남북 관계에서 통일부의 조치가 눈에 띈다. 지난 7월 3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북한 주민 접촉 지침을 폐기하고 북한 주민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를 낳고,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북한 주민 접촉 전면 허용 조치에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큰 상황에서 민간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 것으로 읽힌다.

사회문화교류 중심으로 남북 관계 복원하자

여전히 남북 관계는 냉랭하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먼저 지금 남북 관계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정치와 경제가 주도해 왔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남북의 정권이 바뀌는 부침 속에 정치협상이 남북 관계를 규정해 왔다. 다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진전되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정치도, 경제도, 남북에 놓인 마음의 거리를 줄여주지 못했다. 이제 통일은 당위가 아니며 우리 미래세대는 통일을 부정적인 미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남북의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문화교류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새로

운 시작을 모색할 때 앞장서는 이벤트처럼 다뤄져 왔다. 하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는 남북 간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남북의 동질성을 조심스럽게 다시 찾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남북 관계 구상에서 사회문화교류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핵심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다시 겨레의 말과 마음을 이어줄 겨레말큰사전

남북의 사회문화교류는 남북의 불신과 갈라진 마음을 잇는 진정한 통일 과업이다. 그 중심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1989년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통일국어사전' 편찬에 합의하며 출발했다.

그 후 15년이 지난 2004년이 돼서야 남북은 '사전편찬의향서'를 체결했고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우리 국회 또한 2007년 4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남북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사업 기간을 연장하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지켜왔다.

남과 북은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차 공동회의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25회 공동회의를 개최했고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올림말 30만 7,000개(기존어휘 23만 개+새어휘 7만 7,000개)의 선별을 완료했다. 다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지금까지 제26차 공동회의가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의 개별 작업만 진행되며 사전 편찬을 마무리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닫힌 남북의 마음을 연결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관련 법제 정비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는 겨레말 보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회를 정부가 출자하는 재단의 형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멋진 정치 회담도, 경제특구도, 남북의 마음이 돌아선 상태에선 무용지물일 뿐이다. 남북의 마음을 잇고 서로 동질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지속될 때, 남북이 한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다시 겨레의 말과 마음을 이어주길 기대해 본다.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재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오디세이 1, 2』, 『북조선 일상다반사』,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등이 있다.

우리의 동행은 마음을 나누는 일

지난 7월 14일 서울시 마포에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아래 '우리민족') 사무실에서 홍상영 사무총장을 만났다. 우리민족은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았다. 통일 운동 분야나 남북 교류 관련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민족도 지난 29년간 구불구불하고 거친 길을 걷거나 뛰다가 한동안 멈춰야 했을 것이다. 2017년부터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됐고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4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잠시 품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그 희망이 깨졌다. 2019년 9월 2일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남북 간 소통 채널은 완벽히 끊기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북이 외부로 통하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때에도, 이후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격화돼 민간에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던 때에도, 그때를 우리 사회에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 그는 시민사회, 지방정부, 청년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에 집중했다. 우리민족에서 28년 동안 근무하며 간사, 부장, 부국장, 사무국장을 거쳐 사무총장이 된 그의 여정을 따라가 봤다.

진행·정리 **윤석정** 겨레말큰사전 기획홍보부 부장
사진 **이효영** 사진작가







우리민족 구성원으로 28년, 사무총장으로는 6년을 지냈다. 소회를 밝힌다면?

우리민족은 활동을 넘어 내 삶의 방향이 됐다. 막상 통일 운동 현장에 오니 남과 북은 일시적 지원만으로 풀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남과 북이 만나지 못한 시간만큼 분단의 벽이 두꺼웠고 오해와 불신은 높이 쌓여 있었다. 분단의 벽을 허물고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려면 식량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북이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사회 체제와 행정 문화 등 차이에 부딪혀야 했다. 여기선 누가 맞고 틀리냐를 따지기보다 서로 협력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우리민족에서 일해 온 지난 28년은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지만, 오랜 시간 만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문화의 차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협력의 윤리를 배웠다. 무엇보다 평화를 실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존중이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민족과는 어떻게 첫 인연을 맺었나.

1997년 2월, 언론을 통해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동포들을 돕는 사업을 한다는 기사를 봤다. 당시 나는 대구에서 민중운동, 진보정당 운동을 했는데 동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동포를 돕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해 3월 초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우리민족 실무 책임자를 만났고 간사를 맡게 됐다. 처음에는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2~3년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28년째 운동 현장을 지키고 있다.

우리민족이라는 단체가 출범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다.

우리민족이 출범하게 된 시작점에 '서로 돕기'라는 철학이 있다. 1996년 6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자는 절박한 인도주의적 요청과 민족적 연대 의식으로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이 출범했다. 6대 종단의 지도자들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발기인들은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 단순한 시혜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오랜 냉전과 전쟁, 갈등의 상처를 딛고 우리 민족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적 실천이라고 인식했다. 남북이 함께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을 나누며 평화를 모색하는, '서로 돕는' 운동으로 본 것이다. 그렇게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은 무엇인가?

하나는 1996년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에 처음 참

여했던 때다. 당시 대북 인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적대감이 크게 고조됐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돕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1997년 4월, 굶주림 속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북한동포에게 옥수수 10만 톤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 언론을 통해 캠페인이 알려지자, 예상을 뛰어넘은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모금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전국 곳곳에서 실향민, 학생, 노동조합, 계 모임, 동창회, 산악회, 종교 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보탰고 전국적인 모금 운동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이 운동을 두고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하나는 '남북 공동 벼 재배 프로젝트'다. 북측 협동농장에서 남측의 농업 전문가들과 북측 농민이 함께 벼를 심고 수확했다. 북측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쌀 1톤을 남측으로 보내왔다. 대북 지원 활동에서 북측이 남측에 쌀을 보낸 최초의 사례였다. 그 포대 속 쌀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능성을 느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진정한 '서로 돕기'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함께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소개를 부탁한다.

우리민족은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에서는 대북 지원 단체들의 협의체인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정책 제안, 법과 제도 개선, 대북 지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했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남북 민간 교류와 평화운동 단체들과도 함께 협력했다. 국외에서는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이 재단과 함께 남북 민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포럼과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또 미국의 전미북한위원회(NCNK), 미국친우봉사회(AFSC),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등과 협력해 인도 지원 및 개발 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행동과 정책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민족은 '대북협력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정보를 나누고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의 원칙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는 우리민족의 내부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남북의 공동 발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남북 교류 협력은 2010년 우리 정부의 5·24조치 이후 사실상 15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남북 간의 소통은 가로막히고 교류와 협력의 기반은 허물어져 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민족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왔다. 교류가 끊겼다고 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시작될 협력을 준비해 왔다. 대북 제재 속에서도 가능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찾고, 평화교육을 실천하며, 과거 남북이 함께했던 협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문화를 퍼뜨리는 활동을 통해 내부 역량을 착실히 쌓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사실상 전면 단절된 상황이다. 이 단절을



넘어서기 위해선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점과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하고, 민간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야 한다. 채널 복원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민간,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남북 협력 구조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가 국민과 손잡고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지금의 절망적 단절도 분명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민족도 그 여정에 흔들림 없이 함께할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남북 관계 회복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책임 있는 실행이 전제돼야 한다. 민간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도 일관되게 신뢰를 쌓아온 주체이다. 정부는 민간을 규제나 통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가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명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교류협력 실행기구로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국가 관계이면서 특수 관계인 남북 관계를 정립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민관 협치형 거버넌스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는 민간이 오래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

건이다. 민간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남북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부라는 이름은 지금의 현실과 과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일부의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립하자는 제안이다. 다른 정부 부처들 이름 대부분이 기능 중심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와 교통,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다룬다. 그런데 통일부는 실질적인 기능과 동떨어진 가치 지향적 명칭이다. 게다가 '통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인 '체제 통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어이다. 반면 남북관계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 즉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능 중심의 명칭이다. 이러한 제안은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먼저 다지자는 전략적 선택이다. 통일부가 앞으로도 정부 부처로서 계속 역할을 하려면 지금 시대에 맞게 그 이름과 기능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부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총괄 조정자, 협력 촉진자, 신뢰 회복의 마중물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민족은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단순히 지난 30년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30년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북한과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간이 왜 남북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가, 시민사회가 어떻게 남북 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이다. 우리 민족은 이런 질문들에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단체의 이름부터 시작해 전략, 서사, 활동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더 많은 시민의 힘을 모아 분단 체제를 넘어 평화공동체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은 남북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북측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이 함께한 기억을 잇고, 무너진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 위한 작고 꾸준한 실천을 이어가고자 한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민족은 그동안의 길을 돌아보며,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겨레말》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남북 분단과 단절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남과 북의 말을 잇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사업회가 남과 북, 겨레의 소통을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도구로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민족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이 우리민족과 사업회 모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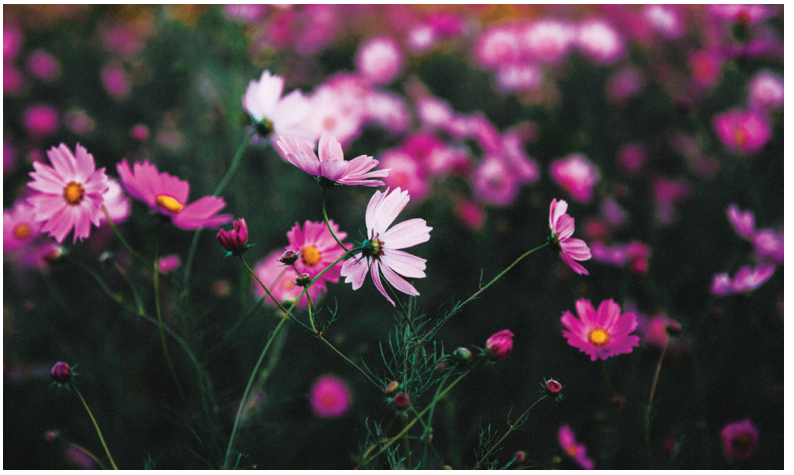


↑ 숲속에서는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존재의 무게가 새롭게 느껴진다.

지리산의 쉼표, 삶의 문장

글 · 사진 **강건모** 에세이스트





↑ 코스모스가 얼마나 다정한 꽃인지, 혼자 걸어보면 알게 된다.

몇 해 전 가을, 지리산에 다녀왔다. 나 자신이 위태롭게 도는 팽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면 그대로 고꾸라질 것 같았다. 중심을 잃은 채 흔들리는 시간의 축에 번잡한 생각들이 엉켜 있었다. 가까운 바다를 찾아가도 막힌 숨은 풀리지 않았다. 매일 올려다보던 높은 산(한라산)이 있었지만, 그때의 마음은 그보다 낮고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산을 생각하자 아직 가보지 못한 지리산이 떠올랐고, 여러 봉우리 중에서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는 노고단을 목적지로 잡았다. 산행에 익숙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능선 아래 마을에는 붉은 감들이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여름의 뜨거운 시간이 농축된 듯 깊어진 감빛은 기울어지는 햇살을 머금고 더욱 찬란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들이 가냘픈 몸을 바람에 내맡긴 채 흔들리고 있었다. 얇은 꽃잎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제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그 연약한 모습은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내 발걸음과 겹쳐졌다. 발을 뗄 때마다 코스모스에게서 작은 응원을 받는 듯했다.

나무들의 숨결 속으로 들어서자 한순간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느낌이었다. 숲은 숨을 쉬는 듯 웅성거렸고, 나무와 풀, 작은 벌레들까지 뿜어내는 기운이



↑ 노고단에 서서 바라본 지리산의 겹겹 능선.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 위세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숲에선 사소한 것에 가득 민감해진다. 물렁물렁한 소리들로 귀가 쉬이 축축해지고, 어둠이 두드린 눈은 벌써 저녁을 닮아 있다. 어느 쪽으로든 계속 걷는 동안 갈랫길 하나가 지워진다. 좌우가 사라지고 위아래가 흩어진다. 시간을 까먹는다. 그사이 겨드랑이가 가렵고, 내 어딘가에서 어린 가지가 비어져 나온다.

능선을 오르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쉼표 같다. 긴 문장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부호. 멈춘 듯 보이지만 자기만의 문장을 이어가는 주체다. 산 아래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다른 풍경 속으로 들어가며, 그 쉼표는 비로소 문장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호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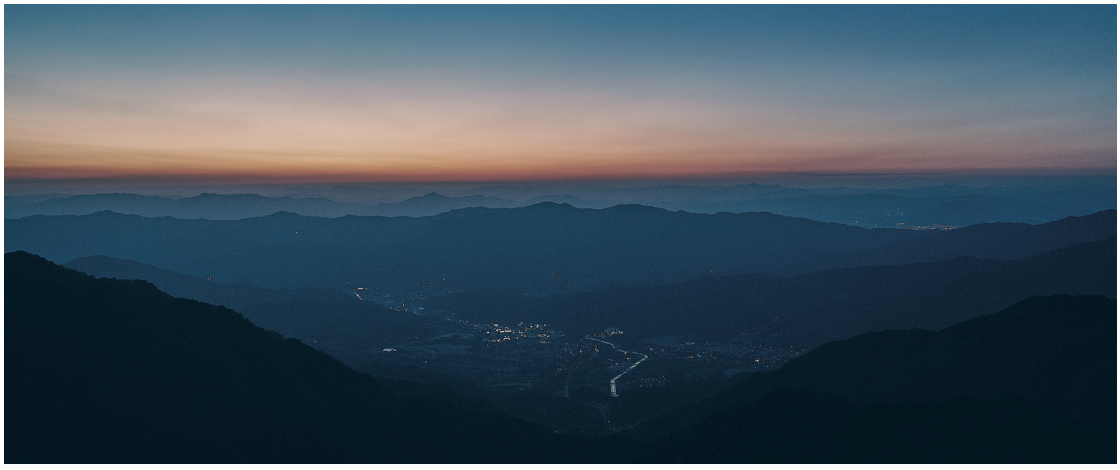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 시간쯤 느리게 걷다 보니



↑ 노고단(老姑壇)은 마고할미에게 제사를 올리던 자리라는 뜻이다. 옛날 화랑이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어느새 정상이었다. 산마루를 적시기 시작한 저녁빛이 눈앞에 펼쳐졌다. 평소 해가 뜨고 지는 광경에 별 느낌이 없던 나도 그날 거기서만큼은 더 이상 무심할 수가 없었다. 그 빛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비추듯, 잊고 지내던 감정을 천천히 불러내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단 한 번도 그토록 오래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노고단의 이름과 돌탑의 유래를 적은 표지판에는 천년 전, 이곳에서 신라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화랑이라니. 역사책에서나 보



↑ 하늘과 산이 노을 속에서 잠시 손을 맞잡는다.

았던 그 단어가 갑자기 생생히 다가왔다. 나는 훈련을 마친 뒤 붉은 하늘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어깨에 몸을 기댔을 젊은이들을 떠올렸다. 누구는 기세를 뽐내고, 누구는 실패의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그러나 해가 저무는 순간만큼은 누구도 무장하지 않은 채, 그저 하늘빛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았으리라. 그 오래된 기운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바람결에 묻어난 청춘의 열기, 우정과 경쟁, 그리고 다시 다잡았을 결의가 저녁빛과 함께 피어올랐다.

노을은 천 년을 넘어 이제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잊고 노을 속에 스며들었다. 산 아래 사람들과 얽힌 번거로운 일들이 아른거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와 무관한 듯이 여겨졌다. 두 눈을 감은 채 노을의 침묵 속에 나를 내맡겼다.

나는 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산 정상에서 저녁을 마주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것은 긴 호흡 끝에만 잠시 허락되는 선물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고단함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저녁은 더 이상 풍경이 아니었다. 내 안으로 스며든 뭉근하고 따스한 빛이었다. 지쳐 쓰러질 것 같던 팽이가 마침내 멈춰 선 순간이었다. 하지만 고꾸라지는 대신, 그 자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느낌이었다. 흔들리던 시간이 멈추고, 그 위에 새로운 축이 세워지는 것 같았다. 산에서 내려와 주차장에 서자 해는 완전히 졌다. 세상의 저녁은 졌지만, 내 안의 저녁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모닥불처럼 따스하게 빛났다.



강건모

에세이스트, 문학편집자, 사진가. 저서로 사진 에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문집 『무탈한 하루』가 있고, 단편영화 〈바람작업실〉을 연출했다. 현재 제주에 살며 이야기가 피어나는 삶의 결정적 순간을 다양한 예술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우리 시대에 기록해야 할 새로운 말들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언어의 신세계'이다. 남북 간의 언어 교류는 언어 차이, 문화 차이를 배움과 동시에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방 이후 80년간 분단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새로운 말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어·신조어, 언어 문화, 말의 트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언어의 신세계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말들은 왜 태어나며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언어 및 빅데이터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우선 남길임은 신어 탄생의 원리를 언중의 의사소통 욕구라고 압축했다. 그는 "언중의 의사소통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반드시 새로운 표현, 신어가 탄생한다."라며 신어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온 주요 사건과 문화, 욕구와 가치의 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어의 생성은 의도와 맥락을 포함하는 인간 고유의 행위이며,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 언중의 가치 변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신어 자원의 수집과 사전적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은하는 북측과 재외동포 사회에서 탄생한 신어를 소개했다.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신어나 미등재어를 초지역어라고 했다. 그는 초지역어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언어 자원과 조어법에 의해 자연스럽게 같은 말이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며 "우리가 국경과 경계를 넘어 하나의 언어 공동체임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어와 미등재어를 수집하고 사전에 기술하는 일은 그 변화의 물결을 기록하는 작업"이라며 "남북 및 재외동포어 공동 말뭉치 구축과 공개, 지역별 신어와 미등재어 추출·분석 및 기술, 남·북·재외동포어 신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통합을 통한 상호 검색·비교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작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정유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신조어가 시대의 생활감과 사고방식을 압축한다며 2025년 말의 트렌드를 '나만의 감을 추구하는 언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요즘 하는 말에서 AI 시대 속 인간의 경쟁력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요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를 읽는 훈련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조어는 금세 사라질 유행어나, 우리말을 훼손하는 흠집이 아니라, 동시대의 맥박이 압축된 기록물"이라며 "언어의 변화를 주의 깊게 포착하는 습관은 '지금'을 정확히 사는 방법이면서 다른 세대와 시대를 이해하는 통로"라고 말했다.

신어의 신세계: 언어의 창조성과 역동성

글 **남길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흔히 신어라고 하면 가볍고 격이 낮은 표현, 유행어, 비속어 등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류 언어, 어휘의 역사에서 신어가 아니었던 표현이 있을까? 몇몇 신어 연구에서 언급된 '양복, 양배추, 양옥'이나 '해방, 친일파, 신탁통치, 찬탁(신탁통치 찬성), 반탁(신탁통치 반대), 무조건 항복' 등도 각각 개화기와 해방 전후의 신어였으며, '햇볕 정책, 판문점 선언, 검수완박, 초부자 감세'나 '호캉스, 셀카봉, 혼술' 등도 각각 정치와 일상의 영역에서 출현하여 오늘날까지도 성공적으로 정착된 신어들이다. 그러고 보면 사전도 신어의 관점에서 매 시점 출현하고 정착된 신어들이 오늘날까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어의 출현은 상당 부분 새로운 현상이나 제도, 물건 등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나라 밖에서 들어올 때 발생한다. 딱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더라도 신어는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혼술, 혼밥',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내돈내산'과 같이 새로운 범주화가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표현으로 이를 표현하기에 부족한 경우나 언중의 언어 창조성, 유희에 의한 욕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합성, 파생, 혼성, 축약'이라는 표면적 현상 이면에는, 해당 표현이 필요한 의사소통 상황과 언중의 명명 욕구가 자리한다. '오운완'은 자기계발이 중요한 시대적 특성을, '내돈내산'은 광고 글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구매 후기가 중요한 시대에 이들을 범주화하기 위해 등장했다. 오늘날에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언중들의 언어유희에 대한 욕구도 신어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언어 창조의 새로운 축을 담당하게 된 대중들은 바꿔 말하기, 유추, 비유 등을 통한 언어 창조를 즐기고 향유한다. '근본이 없다'와 '어이가 없다' 대신 '무근본'이나 '어이 상실'을 쓰는 것,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넘어 '일학개미, 선학개미'를 명명하고, '벼락부자'에 착안하여 '벼락거지'를 생성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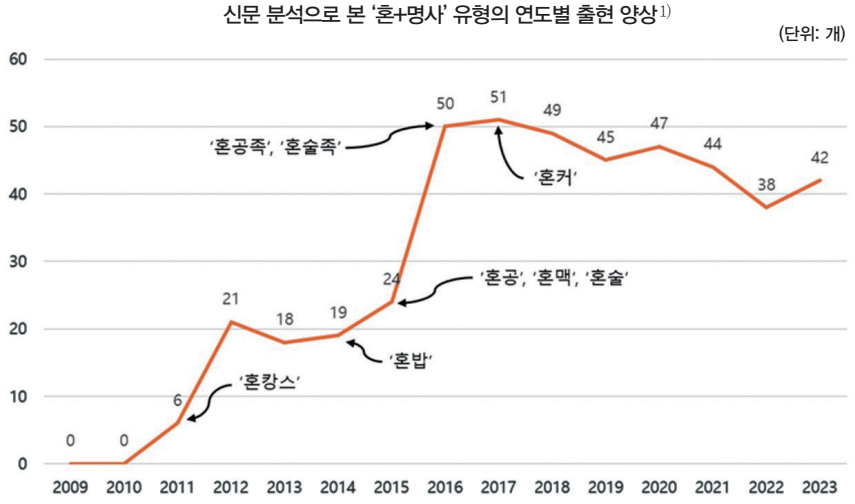
일견 복잡해 보이는 이러한 신어 탄생의 원리는 단 한 마디로 압축이 가능하다. 바로 '언중의 의사소통 욕구'이다. 필요에 발명이 있듯이, 언중의 의사소통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반드시 새로운 표현, 신어가 탄생한다. 이 욕구의 기록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온 주요 사건과 문화, 욕구와 가치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신어의 범주와 유형

인간 언어의 창조성을 '신어'에 한정하여 논의할 때, 신어의 언어학적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해당 언어 공동체에 처음 나타난 새로운 형태를 신어라고 하지만 실제 사전 편찬에서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구 단위 역시 신어로 기술된다. 이러한 다양한 신어의 유형은 한국어 사전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사전(OED) 등 세계 주요 사전에서도 신어 등재에 반드시 포함된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신어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201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혼+명사'류 신어들, '혼밥, 혼술, 혼치킨, 혼캉스, 혼놀' 등 대표적인 새로운 형태의 신어들은 '혼자'의 '혼–'이 음식 또는 여가 활동, 여행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어를 형성한 예들이다. 이들 신어의 확산은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최초로 전국 1인 세대 수가 전체 세대의 40%를 넘었다. 실제로 사용되는 '혼+명사'의 신어는 2011년 '혼캉스'를 시작으로 급속히 생성되었으며 현재 '혼공부, 혼와인, 혼술하다, 혼맥' 등 200개 유형을 훌쩍 넘는다.

신문 분석으로 본 '혼+명사' 유형의 연도별 출현 양상[1)]



새로운 의미의 신어는 흔히 특이하거나 새로운 언어적 결합에서 비롯된다. '착한 가격'이나 '추억 소환', '한우 영접' 등에서 '착한, 소환, 영접'은 본래의 의미에서 다소 달리 사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의미적 신어의 사례이다.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착한 것, 소환 조사가 필요한 사람을 소환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나 기억'을 상기하는 것은 이들 단어의 의미 확장의 결과이다. 귀한 손님이나 신을 모시는 '영접'은 '치킨 영접, 한우 영접'처럼 '음식이나 경치'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들은 특이한 조합으로 새로운 표현과 신선함을 원하는 언중의 욕구에 따라 창조된 조합이다. 학자들은 이와 같이 유머나 주목 끌기를 위한 언어의 창조를 의도있는 일탈로 규정하며, 문학적 창조성과 문법적 창조성과 구분되는 제3의 창조성으로 명명한다.

1) 필자가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신문말뭉치)〉에서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 – 편집자 주

또 다른 중요한 유형으로 신어는 단어를 넘어서 구 단위의 의미 단위로 형성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에이아이, 생성형 인공지능, 초부자 감세, 조력 존엄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은 전문 영역에서 등장한 신어로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이다. 구 단위를 통해 새로운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전략은 전문용어뿐만 아니라 '팔십팔만 원 세대, 인공지능 세대' 등과 같은 일상 표현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며, 사전 편찬이나 언어 교육에서 범언어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된다.

인공지능과 신어: 얼마나 이해할까?

인공지능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에 인간만 언어의 창조성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특정 상황을 주고 그러한 어휘를 생성해 달라는 요청에 인공지능 모델은 그럴싸한 잠재적인 신어들을 생성해 내고, 드물게는 기존 신어에 대한 뜻풀이도 사전 못지않게 한다. 그렇다면 신어의 이해와 창조의 영역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기서 2023년 최신 신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소개해 본다. 대상이 된 신어는 각각 2023년 1월과 2월에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스팸 지수'와 '택시 통금'이다.

'스팸 지수'는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중고 사이트에 명절 선물인 '스팸' 선물 세트를 되파는 현상에서 생긴 신어로 그 선물 세트의 시세를 말하며, '택시 통금'은 택시비 상승으로 대중교통 막차 시간에 맞추어 집에 귀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통점은 모두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어려움, 서민 생활의 팍팍함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떻게 답할까?

(User) 2023년에 최초로 등장한 신조어 '스팸 지수'는 어떤 뜻이야? 명절에 받은 '스팸 세트'를 되파는 것과 관련 있어.

(GPT-5) 2023년에 등장한 신조어 **'스팸 지수'**는, 명절에 받은 스팸 선물 세트를 되파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쓰인 용어로, **'스팸'과 한국 증시 지수인 '코스피'의 합성어입니다(→오류)**. 즉, '스팸 지수'는 명절 기간 중 스팸 선물 세트가 중고 거래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을 **투기 지수처럼 재치 있게 표현한 말(→오류)**입니다.

(User) 2023년에 최초로 등장한 신조어 '택시 통금'은 어떤 뜻이야?

(GPT-5) '택시 통금'은 2023년에 등장한 한국의 신조어로,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져, 모임을 서둘러 끝내는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한 말(→오류)**입니다. 다시 말해, 늦은 시간 택시 이용을 자제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금' 현상을 빗댄 **유쾌한 표현(→오류)**입니다.

프롬프트에 따라 다른 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은 신어의 이해와 생성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스팸 지수'가 '스팸'과 '코스피'의 합성어라며 형태적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두 사례 모두에서 '재치 있게 표현한 말', '유쾌한 표현' 등 화용적으로 잘못된 해설을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화용적 오류는 대규모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학습한 '신어=긍정적 표현'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 즉 '확률론적 앵무새(stochastic parrots)'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 실험은 '신어'의 창조를 매개로, 인간 고유의 창조성과 기계가 수행하는 패턴 모방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언뜻 보면 인공지능도 언어를 모방하고 이해하는 듯하지만, 신어를 탄생시킨 생산자의 의도와 매 순간 신어가 탄생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경험과 문화적 뉘앙스, 신어 생성의 맥락까지는 성공적으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시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신어 자원의 수집과 사전적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신어의 생성은 의도와 맥락을 포함하는 인간 고유의 행위이며,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 언중의 가치 변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신어

인터넷과 모바일의 일상화, 메신저 등 새로운 매체에 따른 글말의 확산과 함께 언어 변화의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다. 북한이나 재외동포어 역시 이러한 언어와 매체 변화의 시대적 흐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전문어 '구름계산(클라우드 컴퓨팅), 대자료(빅데이터), 기름풀림성(지용성), 지능농업(스마트팜), 손접촉판(터치패널)' 등의 용어는 새로운 개념과 기술 도입에 따른 북한의 언어 수용 양상을 보여준다. 언어학자로서 더 흥미로운 예는 '호호깔깔(웃다), 뚱기뚱기(해가 솟다)'와 같은 의성의태어류, '질문소나기, 손뼉소나기'와 같은 새로운 조합의 미등재어들이다. 여기서 '소나기'는 남한어에서 '질문 세례, 손뼉 세례'와 같이 교체하면 더 자연스럽겠지만, 북한어의 이러한 조합도 상당히 인상적인 조어이며 언어학자의 관심을 자극한다. 언어는 상당 부분 관습의 산물이어서 이러한 관습의 차이는 연구자들에게도 흥미롭고, 겨레말을 모두 모으는 사전 편찬자들에게도 귀중한 사례일 것이다. 이들이 신어인지 단순 미등재어인지 알 수 없으나 현재 북한어 사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디지털화된 최신 북한어 말뭉치가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북한 신어의 수집과 기술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신어가 함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날을 기대해 보는 건 국어학자만의 욕심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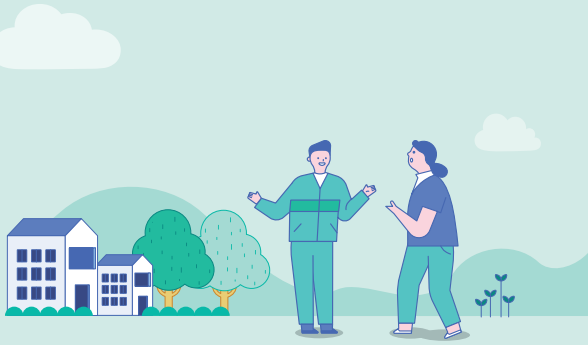


남길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 국어학 석사, 박사를 받았다. 아시아렉스(아시아사전학회) 회장, 유럽전자사전학회 학술위원, 한국어의미학회 편집위원장, 한글학회 편집위원, 국어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전문위원,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을 수행했다. 주요 저서로는 『신어 2020』~『신어 2023』 시리즈, 『현대 신어 연구』,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석』 등 다수가 있다.

끊임없이 자라는 겨레말: 북·재외동포 사회의 신어

글 **황은하**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교수



말의 생로병사와 10년의 공백

사전 편찬 여부와 무관하게 언어의 생성과 소멸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2015년 이후 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 원고를 놓고 마주 앉지 못한 채 10년을 보냈다. 그동안 남측에서는 '빅데이터, 태블릿 피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외래어 기반 신어가, 북측에서는 '대자료(빅데이터),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 판형콤퓨터(태블릿 피시), 구름계산(클라우드 컴퓨팅), 손접촉판(터치패드)'처럼 한자어 중심의 신어가 각각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신어 외에, 일부는 오래 쓰였으나 사전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미등재어도 있다. 이들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는 소중한 언어 자산이다.

이 글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북측 언론 매체 2종과 2020년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재외동포 사회별 언론 매체와 문학 작품에서 채집한 신어·미등재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엔진'이 돌려낸 북측의 신어

북측의 신어·미등재어는 의미적으로 의미 강조·감정 강화어, 사회·문화·제도어, 일상 생활어, 과학기술 전문어 등 네 부류의 어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 의미 강조·감정 강화어

이러한 어휘들은 군사·정치·문화 담론뿐 아니라 시어 등에서도 결연함과 집단 결속을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 만장약하다: 총포에 화약이나 폭약을 가득 채우다.
- 최진두: '진두(맨 앞장)'에 접두사 '최-'를 붙여 의미를 강화함.
- 무쇠가슴: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을 은유함.
- 만년성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방어 체계'를 은유함.

2) 사회·문화·제도어

이 어휘들은 남측과의 제도 차이를 반영하며 북측의 행정·정치 조직 구조를 보여준다.

- 구역대의원, 구역병원: 군급에 해당되는 행정 구역 단위의 대의원, 병원.
- 세포당원: 당 조직의 기층 조직인 세포에서 활동하는 당원.

• 료해성원: 현지에 파견되어 실태를 조사, 확인하고 보고하는 성원.
• 경험토론회: 경험이나 성과를 공유하는 회의.
• 졸업배치: 국가 수요에 따른 대학 졸업생의 직장 배치.
• 년로보장자: 의무노동 연한을 마치고 법에 따라 각종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

3) 일상 생활어

지시 대상의 재료, 제조, 모양, 용도 등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 감자꽈배기(감자가루로 만든 꽈배기), 입술보호연지(립글로스), 머리칼성장제(발모제), 검은사자고추(검보라색 파프리카), 졸인젖기름사탕(농축 캐러멜) 등

4) 과학기술 전문어

외국어 음차보다는 기존의 형태소를 적극 활용해 고유어화, 한자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센힘/약한힘: 물리학 개념 'strong/weak force'를 직역한 고유어 물리학 용어.
• 기름풀림성(지용성), 이발아픔(치통), 검은물질(암흑물질), 구름계산(클라우드 컴퓨팅) 등

한편, 단어 형성법 측면에서 북측 신어는 합성어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형성소의 어원으로 보면, 고유어+고유어(무쇠가슴), 고유어+한자어(물고기풍년), 외래어+한자어(센치자)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접미사 '-적'의 높은 생산성이 돋보이며(주객관적, 연령심리적 등), '풍짝풍짝', '쉬쭉쉬쭉'과 같은 새로운 고유 형태소의 활용과 중첩(손에손에, 가슴가슴)을 통한 신어 생성도 눈에 띈다.
이렇듯 북측의 신어는 그 사회의 생활양식, 기술 발달, 정치·제도 변화, 그리고 언어정책 방향을 함께 보여주며, 특히 '자국어화'와 '우리말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계에서 피어난 재외동포어 신어

앞서 살펴본 북측의 언어 변화가 분단 상황과 내부 정책의 산물이라면, 다음으로는 국경을 넘어 각기 다른 사회 언어 환경 속에서 자생한 재외동포어 신어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조선어

중국 조선어 신어는 고유 형태소 기반 합성이 대부분이고, 특히 은유와 직유를 넘나들며 해학적인 말을 만드는 등 활발한 신어 생산성을 보인다.

• 걱정도감: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불필요한 간섭을 잘하는 사람.
• 앓음자랑: 자주 아픈 것을 익살스럽게 이르는 말.
• 호미대학: 대학 진학에 실패한 청년이 농사일에 뛰어드는 것.

- 입까기: 조심성 없이 그저 내키는 대로 말하는 일.
- 막대짚음: 남의 생각을 짐작으로 건너짚는 것.

또한, 중국어를 직역한 신어도 적지 않다.

- 루루천년: '루루(累累, 무겁게 오래 쌓인 것)'에 한자어 '천년'을 결합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뜻함.
- 림장(임업장), 산부업(산에서 하는 나물 채취 등의 부업)

2) 러시아 고려말

러시아 고려인 사회는 161년의 긴 이주 역사에서 자체 문학 생산, 자체 신문 발행 등으로 우리말의 명맥을 이어왔다. 사할린 지역의《새고려신문》의 2020년대 기사 약 30만 어절을 말뭉치로 구축해 분석한 결과,《우리말샘》에 없는 신어 또는 미등재어 120개가 추출되었는데, 일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고빈도 어휘: 한민족지(한민족이 발행하는 언론 매체), 한인사, 추념비 등

이들 신어는 모두 고려인 사회의 집단 기억과 관련된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기리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3) 재일동포어

재일동포어에는 주로 일본어, 한자어를 직역한 신어가 많으며, 그밖에 고유 형태소의 합성, 영어 차용 등의 신어도 눈에 띈다.

- 보육·교육 제도 관련어: 연장보육, 인정어린이집, 문계(문과), 리수계(이과) 등
- 재일동포들의 모임 관련어: 불고기모임(식사를 겸하는 동포 모임), 아버지회(아버지들의 모임) 등
- 재일동포들의 행사 관련어: 페스타(축제), 채리티(자선회) 등

4) 재미동포어

재미동포 사회의 경우 남측과의 밀접한 연계로, '파킹하다'와 같은 차용에 기반한 단어 외에는 신어나 미등재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재미동포 사회의 현실 문제를 드러내는 말도 더러 관찰된다.

- 서류미비자: 유효한 체류 허가 서류 없이 거주하는 사람.
- 고국배송: 주로 북미에서, 재외동포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포 상점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상품을 보내는 서비스.

초지역어 – 하나의 언어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말

북측과 재외동포어의 어휘를 조사하다 보면 둘 이상의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신어나 미등재어가 적지 않

은데, 이를 초지역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북측 문헌에서 발견되는 '-적' 파생어(반증적, 화폭적 등)나 러시아 고려인 신문에서 고빈도로 쓰이는 '한민족지, 한인사, 추념비' 등은 남측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인터넷 자료에서는 용례가 확인된다. 한편, 중국 조선어 소설에서 나타난 '시릇하다(싫은 듯하다)', '제노라' 등의 어휘는 북측 자료에서도 그 사용례가 관찰된다.

이런 초지역어는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언어 자원과 조어법에 의해 자연스럽게 같은 말이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국경과 경계를 넘어 하나의 언어 공동체임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원 지역을 밝히는 데 공을 들이기에 앞서, 사전에 올려 여러 지역의 용례를 나란히 제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 통합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다채로운 신어와 미등재어들은 우리 겨레의 통합된 언어 지도를 작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퍼즐 조각들이라 할 수 있다. 사전 밖의 이 말들을 신속히 사전에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다. 지역·세대 교체로 소멸 위험이 큰 어휘를 기록해 언어 자산을 보존하는 것이 첫째이다. 남측에는 없던 개념과 표현을 흡수함으로써 우리말의 표현력과 어휘 의미망을 확장하며, 통일 이후 언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보면 남에서 대규모 언어 말뭉치가 만들어진 것처럼, 북과 재외동포가 써온 우리말의 말뭉치도 구축해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러 지역의 우리말의 변화를 측정하고 관찰하는 일도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낱말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가장 먼저 흡수하는 그릇과 같다. 남북과 재외동포 사회의 신어와 미등재어를 수집하고 사전에 기술하는 일은 그 변화의 물결을 기록하는 작업이자, 우리말의 경계를 확장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남북 및 재외동포어 공동 말뭉치 구축과 공개 ②지역별 신어와 미등재어 추출·분석 및 기술 ③남·북·재외동포어 신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통합을 통한 상호 검색·비교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이 당장 필요하다.



황은하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교수. 중국 연변대학 응용언어학 석사, 연세대학교 말뭉치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구축을 시작으로 말뭉치 구축 · 활용 연구를 수행했으며, 《연세 현대한국어사전》, 《연변말모이》 등 사전 편찬에 참여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어 기초 어휘 선정을 위한 말뭉치 설계 및 구성의 실제」(2021), 「CIS 지역 고려인 동포의 한글 텍스트 아카이브 현황 조사 및 활용 연구」(2025) 등이 있다.

요즘 말을 이해하는 두 가지 패턴

글 **정유라** 트렌드 연구원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운 언어가 생긴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소셜미디어에 남겨진 말들을 데이터로 분석해 오면서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새로운 언어가 생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실험장이며, 신조어는 그 시대의 생활감과 사고방식을 압축해 보여준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 햄스터 카페, 쿠팡 아르바이트 갤러리, 트레일 러닝, 비밀독서 결사단…. '이런 주제로도 모인다고?' 싶을 만큼 다양한 소모임들이 온라인상에 둥지를 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핵심은 '소통'.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가족이나 친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나눈다. 물과 바람, 햇빛이 있는 곳에서 어김없이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대화가 이어지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말이 자라난다. 유행어 혹은 신조어라고 불리는 말들이 계속 등장한다. 모르는 단어가 자꾸 생겨난다.

한 커뮤니티의 '뷰티' 게시판에 들어가 제목들을 읽어보자. "화알못 수부지의 원픽 메베". 한글로 쓰여 있지만 한 단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이건 뷰티 커뮤니티에 익숙한 사람끼리 오랜 시간 쌓아온 언어의 약속이니까. 화장품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나오는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렇지만 '화알못'–화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제대로 이해해도 요즘 말의 흐름을 읽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신조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그곳에는 지금 사람들의 취향, 불만, 욕망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언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기를 권하고 싶다. 모든 신조어를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몇 가지 규칙만 알아도 모르는 말을 만나 당황하기보다, 그 뜻과 그 시대의 공기를 함께 짐작할 수 있다. 오랜 분석 끝에 내가 발견한 패턴은 두 가지다. 줄임말과 접사. 이 두 가지 문법을 알면 '요즘 말' 속 '요즘 감성'이 훨씬 선명하게 읽힌다.

> 우리가 무언가를 줄여 부르는 것은 경제성을 위한 언어적 본능이다. 무언가를 줄여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 줄임말은 '친숙함'의 언어다. 익숙하니까 자주 부르고 자주 부르다 보니 줄이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패턴: 애정이 담기거나, 일상이 담기거나 '줄임말'

'줄임말'은 다소 억울한 누명과 사투 중이다. 별걸 다 줄인다, 국어를 파괴한다, 소통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잠깐,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자. '수학능력시험'을 '수능'이라고 줄인다고 해서, '기획재정부'를 '기재부'라고 줄여 부른다고 해서 국어가 파괴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언가를 줄여 부르는 것은 경제성을 위한 언어적 본능이다. 무언가를 줄여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스타벅스'를 '스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친숙한 카페 브랜드이기 때문이지, 낯선 브랜드를 대뜸 줄여 부르지는 않는다. 줄임말은 '친숙함'의 언어다. 익숙하니까 자주 부르고 자주 부르다 보니 줄이게 되는 것이다.

스타벅스 같은 고유명사 말고도 숙어처럼 줄여 부르는 말도 있다. 앞서 언급한 '화알못', '화잘알'을 다시 톺아보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수준'을 밝히는 언어가 어쩌다 줄임말이 되었을까? 무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숙어처럼 사용하게 된 배경에 이유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낯선 사람들이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는 가상의 공간이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전혀 알 수 없고 그들의 지식과 정보의 수준 역시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준을 미리 밝히면서 최적화된 정보를 구하는 일이 소통의 습관이 될 정도로 익숙한 일이다. '화알못'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구하는 '일상성'이 녹아 있는 줄임말이다. 즉 줄임말은 자주 부를 만큼 친숙한 '애정'과, '일상성'이 녹아 있는 언어 지표다.

최근의 일상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줄임말 두 가지, '감다살'과 '느좋'을 소개하고 싶다. 흥행하는 콘텐츠의 댓글에는 어김없이 이런 댓글이 달린다. "제작진 감다살이네, 이걸 만들다니." 인기 있는 스타의 사진 밑에도 이런 댓글이 꼭 달린다. "느좋 그 자체." '감다살'은 '감이 다 살아 있다.'라는 뜻, '느좋'은 '느낌이 좋다.'는 뜻이다. "제작진이 일을 잘한다." 라는 말보다 '감다살'을, "정말 예쁘다."보다 '느좋'을 외치는 이유는 뭘까? 둘 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흔한 숙어다. 도대체 왜 줄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줄여 부를 만큼 많이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이들의 공통점은 '감'과 '느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오늘날, 챗지피티(ChatGPT) 유료 구독자가 전 세계 2위인 대한민국에서, 왜 요즘 사람들은 그 어

> 맥락과 경험이 켜켜이 쌓인 '감'. 누군가의 표정, 말투, 분위기에서만 포착되는 이 고유하고 독보적인 '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요즘 말'에 녹아 있다. 그래서 요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를 읽는 훈련이다.

느 때보다 '감'과 '느낌'을 찾고 있을까? 논리의 영역에서 인간이 AI를 따를 수 없는 시대에선 개인의 감각과 느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얼마나 기민하게 시대에 협응하는 '감'을 가졌는지, 자신만의 '느낌'을 발산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된 것이다. '감다살', '느좋'과 같은 신조어는, 인공지능이 일상과 사고를 잠식하는 우리 사회에서 '감각'의 중요성을 외친다. 자신만의 감각을 벼리고, 정서를 세밀하게 드러내는 것이 능력임을 암시한다. 해괴한 줄임말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배울 점이 있다.

두 번째 패턴: 언어의 변주, 접사의 활용

누군가가 나에게 "요즘 트렌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나는 유행하는 말들의 접두사와 접미사를 보라 말한다. 다시 한번 '화알못'을 떠올려보자. '화알못'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다. 요리를 모르는 사람은 '요알못',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술알못'이라 말한다. 그런가 하면 '화잘알(화장을 잘 아는 사람)'이나, '맛잘알(맛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도 많이 쓴다. '화잘알'과 '맛잘알'은 '안다'라는 말을 가운데 두고 접두사와 접미사를 모두 바꾸면서 언어를 확장한다. 특정 접사가 다양한 언어로 활용되는 경우에 주목하자. '1인 가구'와 '개인화'가 화두였던 때에는 '혼밥', '혼영', '혼공' 같은 단어들이 '혼'을 중심으로 활발히 확장했다. 여가의 중요성이 커지던 시대에는 '호캉스', '집캉스', '몰캉스'와 같은 말들이 생겨났다. '어떤 단어'가 요즘 제일 활발하게 확장되느냐가 지금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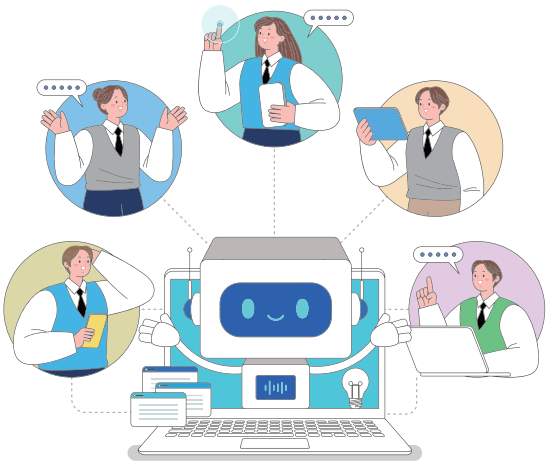
요즘 제일 활발하게 확장하는 '접사'는 '꾸'다. 우리는 지금 '꾸미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방을 유심히 살펴보자. 열 개 중 적어도 다섯 개에는 인형이 매달려 있을 것이다. 그걸 '백꾸'라고 한다.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에서 시작된 '꾸미기'의 진화는 '폰꾸(휴대폰 꾸미기)', '신꾸(신발 꾸미기)'에서 더 확장되어 '백꾸'로 번졌고, 모두의 가방에 인형 친구를 매달아줬다. '다꾸'의 핵심은 '다이어리'가 아니라 '꾸미기'이다. '꾸'는 기성품에 개인의 취향을 더하며 '나다움'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를 선명히 보여준다.

2025년 말의 트렌드: 나만의 감을 추구하는 언어

신조어를 이해하면 요즘 말에 담긴 시대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한국 신조어에서 느껴지는 최

근의 흐름은 '나만의 감'을 전면에 세운 말들이 많다는 것이다. '감다살', '느좋' 같은 표현은 순간의 감각을 압축해 전한다. 이 짧은 단어들은 정보보다 인상을, 논리보다 느낌을 먼저 주고받는 우리 일상을 보여준다. '꾸밈'은 자신의 관점과 취향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요즘 하는 말에서 AI 시대 속 인간의 경쟁력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측 불가하고, 수치화할 수 없으며, 맥락과 경험이 켜켜이 쌓인 '감'. 누군가의 표정, 말투, 분위기에서만 포착되는 이 고유하고 독보적인 '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요즘 말'에 녹아 있다. 그래서 요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를 읽는 훈련이다. 신조어는 금세 사라질 유행어나, 우리말을 훼손하는 흠집이 아니라, 동시대의 맥박이 압축된 기록물이다. 이런 언어의 변화를 주의 깊게 포착하는 습관은 '지금'을 정확히 사는 방법이면서 다른 세대와 시대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처음, 이 글에서 소환한 '화알못'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 말이 등장한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단어를 마주했을 때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밀어내지 않고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를 먼저 묻게 된다. 바로 그 질문에서, 변화한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자란다. 그리고 그 이해심이야말로, 시대와 멀어지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감'일 것이다.





정유라

트렌드 연구원. 2015년부터 빅데이터로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카드사의 빅데이터연구소에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말의 트렌드』를 썼고 공저로는 『트렌드 노트 17~21』, 『넥스트 밸류』 등이 있다.

남북의 사자성어와 속담

글 오영철 굿파머스 연구위원



↑ 출처: KBS 홈페이지(www.kbs.co.kr)

한민족이, 한반도가 분단된 지 8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옛말처럼 남북의 분단이 길어지면서 체제가 다른 남북은 언어 표현에서 차이가 생겼다. 과거에는 각 지역마다 방언과 사투리가 있었고 일부 발음이나 억양의 차이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남과 북이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이 '조선어를 발전시킨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적극 추진한 '우리말 다듬기'로 인해 더욱 남북 언어 차이가 생겼다. 특히 남북의 어문규범에서 두음법칙이나 사이시옷 등 표기법이 달라지면서 언어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사자성구와 사자성어

나는 KBS 1TV에서 방영하는 〈우리말 겨루기〉를 즐겨 본다. 매번 출연자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졸이며 정답을 맞히려 애쓴다. 하지만 달인 문제는 고사하고 초반에 나오는 문제조차 정답을 절반 정도도 맞혀본 적이 거의 없다. 내가 모르는 게 많은 것도 있지만, 제시되는 문제의 수준이 높은 데다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다른 것이 큰 이유이다. 특히 잘 맞히지 못하는 문제는 주로 사자성어와 속담이다.

북한에서는 사자성어를 '사자성구'라고 한다. 〈우리말 겨루기〉를 보면 사자성어 문제가 꼭 나온다. 북한은 외래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은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들이 북한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이 많아 놀랄 때가 있다. 최근 방영된 〈우리말 겨루기〉에는 '칠전팔기(七顚八起), 이열치열(以熱治熱), 기호지세(騎虎之勢)' 등의 사자성어가 제시됐다.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함을 이르는 '칠전팔기', 열은 열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열이 날 때 땀을 낸다든지, 뜨거운 음식을 먹어 더위를 이긴다는 의미의 '이열치열', 한 번 시작한 일을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기호지세' 등의 사자성어가 한국에서는 익숙할 것이다. 모두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빗댄 표현이어서 한 번만 들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머리에 새겨진다.

나는 북한에서 '칠전팔기, 이열치열, 기호지세'라는 사자성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낯선 사자성어를 접하게 되면 바로 핸드폰으로 뜻풀이를 검색해 본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환경에서 강자만 살아남는다는 의미의 '적자생존(適者生存)'이나 인생 혹은 사물의 번성함과 쇠락함이 서로 바뀐다는 의미의 '영고성쇠(榮枯盛衰)', 끝을 잘 마무리하는 아름다움을 일컫는 '유종지미(有終之美)', 여우가 범의 위세를 빌려 다른 짐승을 놀라게 한다는 '호가호위(狐假虎威)' 등을 비롯해 '역지사지(易地思之), 결자해지(結者解之), 다다익선(多多益善), 유비무환(有備無患), 군계일학(群鷄一鶴), 인과응보(因果應報)' 등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보았다. 비록 낯설고 생소한 사자성어이지만 몇 번 곱씹으면 그 내용이 저절로 이해돼 머리를 끄덕이게 했다.

북한에서 주로 쓰는, 사자성어의 외형을 갖춘 단어들이 있다. '백두혈통, 강성대국, 주체사상, 자력자강, 일심단결, 필승불패, 자력갱생, 계급투쟁, 혁명전통, 무상치료' 등을 꼽을 수 있다. 하나같이 북한이 체제 유지와 선전을 위해 사상과 이념, 당국의 정책과 주장을 반영한 용어, 구호들이다.

물론 남과 북이 같이 쓰는 사자성어도 많다. '일석이조(一石二鳥), 이구동성(異口同聲), 호언장담(豪言壯談), 문전성시(門前成市), 견물생심(見物生心), 표리부동(表裏不同), 허장성세(虛張聲勢), 천생연분(天生緣分), 팔방미인(八方美人), 풍전등화(風前燈火), 어부지리(漁父之利), 속수무책(束手無策), 동고동락(同苦同樂), 사필귀정(事必歸正), 희로애락(喜怒哀樂), 근검절약(勤儉節約), 자업자득(自業自得), 오리무중(五里霧中), 화룡점정(畵龍點睛)'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자성어는 인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 도덕적·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중 '속수무책'은 경제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북한 주민이 일상에서 자주 입에 올렸던 하소연의 대명사였다.

속담에 담긴 인생의 지혜와 진리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비롯해 교과서, 영화, 도서 등에서도 속담이 자주 등장한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속담은 인생의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다. 우리는 속담을 통해 세상의 이치나 올바른 길을 배우고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

남북이 같은 속담도 많다. 예를 들어 '티끌 모아 태산', '수박 겉 핥기', '꿩 대신 닭', '백문이 불여일견', '등잔 밑이

어둡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불깃 봐 가며 발 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 '남의 일은 오뉴월에도 손이 시리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꿩 먹고 알 먹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등이 있다.

또한 속담의 단어나 표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잉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루 속의 송곳은 빠져나오기 마련이다'라는 속담은 북한에서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고 표현한다. '잉어'는 '숭어'로, '고개'는 '머리'로, '빠져나오기 마련이다'는 '감출 수 없다'로 다르게 쓰는 셈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미래가 없는 사회와 현실을 풍자하는 '현대판 속담'도 등장했다. 이를테면 '가는 말이 고우면 만만하게 본다', '젊어서 고생은 인생 팔자다' 등이다.

지난 7월 초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하는데 '평생소원이 누룽지'라는 속담이 나왔다. 기껏 요구하는 것이 너무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이날은 오랜만에 찾아온 고향 동생과 같이 〈우리말 겨루기〉 정답을 맞히기로 했다. 그런데 속담을 듣는 순간 둘 다 놀랐다.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생은 "형, 고향(북한)에 살 때 저 속담을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답을 맞히고 싶은 열정이 순간 식어버렸다.

세월이 약이다

동생은 한국에 와 정착하기 시작할 때 남한 친구들이 북한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산 적도 있다고 했다. 동생은 한국에서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한국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밤새 위장염을 앓았던 친구의 얼굴이 핼쑥해 마음이 아팠던 동생은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못쓰게 됐냐? 밤새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런데 친구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중에 동생은 한국에선 아픈 사람을 위로할 때 얼굴이 '못쓰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번은 한국에서 만난 지인들과 KBS 1TV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남북의 언어 표현을 즐겁게 비교했던 적이 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풀을 먹는 어린 말에게 은밀히 접근하는 사자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줄말아! 빨리 도망쳐!"라고 소리쳤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 지인이 "줄말이라니! 북에서는 '얼룩말'을 '줄말'이라고 해?"라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한 친구는 털에 얼룩얼룩한 무늬가 아니라 검은 줄이 쭉쭉 간 게 '얼룩말'보다는 '줄말'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치파라솔'을 의미하는 북의 표현인 '오색 큰 양산'도 화제가 됐는데 모두가 '오색 큰 양산'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반응했다. 이날 우리는 좀 투박하지만 북한의 직설적인 표현과 용어가 더 쉽고 정확한 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남녘의 키보드



↑ 북녘의 키보드

북한은 외래어 대부분을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한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에 외래어 때문에 애를 먹는다. 탈북민들은 외국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외래어가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세월이 약이다'라고 했듯 한국에서 몇 년 살다 보니 일상에서 외래어를 자주 접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외래어를 쓰게 됐다. 한국에 입국해 받았던 사회 정착 교육 과정에 컴퓨터 교육 시간이 있었다. 간단한 작동 방법과 함께 타자 연습을 하는데 컴퓨터 키보드 글자판 위치가 남과 북이 달라 힘들었던 적이 있다. 자연스레 북한에서 사용하던 키보드 글자 위치에 손이 가서 타자 속도가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부지런히 연습하니 한국의 글자 위치에 익숙해졌다. 시간이 더 흐르니 북한에서 오래 사용했던 키보드의 글자판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탈북민들이 낯선 외래어에 익숙해지고 북한에서 사용했던 키보드 글자판을 기억하지 못하듯 남북 언어의 표현 차이가 있어도 통일이 되어 함께 살다 보면, 그 차이를 좁히는 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오영철

굿파머스 연구위원. 1966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2014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겨레말큰사전 북한 토박이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술사, 와 ‘요술사,

글 **권혜진**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저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 사전을 집필, 교열하는 사전편찬원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북한에 가 본 적이 있는지,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 본 적은 있는지, 호기심을 담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사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사전을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지 등 꽤나 진지한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방송이나 언론에서 접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남북의 언어 차이가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만약 그렇다면 차이 나는 유형들을《겨레말큰사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묻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남북의 언어 차이를《겨레말큰사전》에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관한 사전편찬가의 끊임없는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우선 일반 언중들이 생각하는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문제 상황부터 살펴보자.

[상황1] 남측 사람이 북측 사람에게 물었다. “결혼을 하셨나요? **맞벌이**인가요?”

[상황2] 북측 사람이 남측 사람에게 부탁했다. “너무 덥네요. 차가운 **에스키모**를 좀 사다 주세요.”

[상황1]의 경우, 북측 사람이 상대측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상황2]의 경우, 남측 사람이 상대측 요청에 적절히 응할 수 있을까? 문제 상황이 해결되려면 북측 사람은 남녘말 ‘맞벌이’를, 남측 사람은 북녘말 ‘에스키모’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남북의 언어에서 ‘맞벌이’와 ‘에스키모’는 1:1 대응쌍을 갖는 어휘 유형에 속하는 올림말인데 다행스럽게도 사전 편찬 집필 과정에서는 ‘맞벌이’에 대응되는 북녘말에는 ‘직장세대’를, ‘에스키모’에 대응되는 남녘말에는 ‘아이스크림’을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1] 문제는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상대측의 대응되는 말을 찾아낼 수 있는 어휘 유형이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의 국어사전에 모두 실린 말인데도 실제로 어느 한쪽의 언중들에게는 낯설거나 어색한 말, 남북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의미나 쓰임의 차이가 생긴 말들일 것이다.

---

1) ‘직장세대’와 ‘에스키모’는《조선말대사전》(2017)에서 발췌한 것이다.
- **직장세대**(職場世帶) [명] 부부가 다 직장에 다니는 세대.
- **에스키모**(Eskimo(영)) [명] 소젖, 닭알, 사탕가루, 향료 같은것을 섞어 일정한 형태로 얼군 고체모양의 차고 단 음식. 판모양, 막대기모양, 고깔모양을 가진다.

2018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함께 방북했던 특별수행원 가운데 마술사 최현우 씨가 자신을 "**저는 마술사, 북측에서는 요술사라고 합니다.**"라고 소개하자 북의 리설주 여사가 "그럼 제가 없어지나요?"라고 물어 좌중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 2018년 10월 2일, 청와대가 공개한 〈평양 B컷: 수고의 감사〉

남에서 쓰이는 '마술사'가 북에서는 '요술사'로 쓰이는 것을 알고 있던 남측 마술사의 재치 있는 입담이 그 당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사전에서 '마술사'와 '요술사'를 살펴보면 이 말들이 '맞벌이'나 '에스키모'와는 달리 아주 복잡한 양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표준국어대사전》(웹)	《조선말대사전》(2017)
마술사(魔術師)	마술을 부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마술을 부리는것을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
요술사(妖術師)	요술을 부리는 사람.	요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마술사'와 '요술사'는 남북의 두 사전에 모두 실려 있다. 그런데 남북의 사전에 제시된 뜻풀이만으로는 남에서 쓰는 '마술사'와 북에서 쓰는 '요술사'의 차이를 잘 알기 어렵다. '-사(師)'는 그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말인데 북에서는 '마술사'와 '요술사'를 모두 '~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풀이한 반면 남에서는 '마술사'만 '~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에서는 '요술사'가 직업의 한 종류라는 것을 짐작할 뿐인데 명확하게 차이점을 알기 위해 남북 사전의 '마술'과 '요술'의 뜻풀이를 살펴보자.[2)]

	《표준국어대사전》(웹)	《조선말대사전》(2017)
마술 (魔術)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임. 또는 그런 술법이나 구경거리.	마귀가 하는 술법이라는 뜻으로 《보통으로는 알기 어려운 기묘하고 이상야릇한 술법》을 이르는 말.
요술 (妖術)	초자연적 능력으로 괴이한 일을 행함. 또는 그런 술법.	① 손재간과 기자재의 조작에 의하여 사물현상을 시각적으로 달리 보이게 하는 교예예술의 하나. 사람들의 눈속임을 기본 방식으로 한다. 기능요술, 기자재요술로 구분하며 작품의 내용에 따라 일반요술, 환상요술, 희극요술로도 구분한다. ② 사람들의 눈을 속여넘기는 재주. ③ 속여넘기기 위한 꿍꿍이.

2) 본문에서 《표준국어대사전》(웹)은 이하 《표대》로, 《조선말대사전》(2017)은 이하 《조대》로 기술한다.

'마술'은 남과 북의 뜻풀이, 즉 '마술'의 개념이 각각 다르고, '요술'은 《표대》는 단의어로, 《조대》는 다의어로 뜻풀이하여 그 형식과 내용이 각각 다르다. 현실적인 직업과 관련된 《표대》의 '마술'은 《조대》의 '요술①'의 뜻갈래와 같은 의미이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관련된 《표대》의 '요술'은 《조대》의 '마술'과 같은 의미이다. '마술사'와 '요술사'의 뜻풀이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남북의 의미 차이를 '마술'과 '요술'의 뜻풀이에서는 알 수 있으며, 두 사전의 뜻풀이 비교를 통해 남에서 쓰는 '마술'과 '마술사'를 북에서는 '요술'과 '요술사'로 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말뭉치의 용례를 통해서 마술(요술) 공연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장치나 속임수를 써서 사람의 눈을 속여 신기하고 재미있는 묘기를 부리는 사람'을 남측은 '마술사'로 북측은 '요술사'로 부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 무대에서는 검은 모자를 쓴 **마술사가** 묘기를 펼치고 **마술사의** 손에서 비둘기가, 토끼가, 꽃이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지만….《서하진: 푸른 폭포 너머로》(남)
· 교예극장에 찾아가 **요술사를** 만났지요. 그 **요술사한테** 몇가지 재간을 배운후부터 우리 학급공연종목은 인기를 끌었답니다.《삶의 보람》(북)

그렇다면 이제 '마술사'와 '요술사'의 뜻풀이를 어떻게 깁고 더할 수 있을까? 첫째, 남북의 정확한 의미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 남북의 기존 사전 풀이 내용을 포괄하되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의미별로 세분화하여 다의어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말뭉치 용례를 통해 찾은 새로운 뜻을 뜻갈래로 추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비겨 이를 때에는 남과 북이 모두 '마술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 4월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화가 마티스(1869~1954)다.《윤금초: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의 사랑》(남)
· 그는 관현악편곡을 섬세하고 능란하게 하여 사람들속에서 〈관현악의 **마술사**〉**라고** 불리웠다.《관현악의 마술사》(북)

셋째, '마술사'와 '요술사'는 남북의 두 사전에 모두 실려 있지만 남과 북에서의 실제 쓰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남북의 쓰임 차이와 관련된 언어 정보는 《겨레말큰사전》의 속구조 정보 가운데 '붙임'[3] 정보에 그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마술사'와 '요술사'의 뜻풀이를 깁고 더하면 아래와 같다.[4]

3) 《겨레말큰사전》에서는 같은 올림말에 대하여 남과 북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특별한 쓰임이나 화용적 용법의 차이를 뜻풀이 문장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 정보에서 기술한다.
4)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의미는 같되 형태가 다른 여러 올림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기본올림말'로 선정한다. 기본올림말을 정하는 원칙에 따르면 '마술사'와 '요술사' 중 자모순에서 앞서는 '마술사'가 기본올림말이 되며 '요술사'는 '마술사'와 같은말로 처리한다.

마술사(魔術師)

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홀리는 신기한 술법을 부리는 사람. [같은말] 요술사①.
② 사람의 손재간과 기자재 조작으로 사물 현상을 시각적으로 달리 보이게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같은말] 요술사②.
③《주로 체언에 붙는 토 '-의' 뒤에 쓰여》 어떤 분야나 일에 있어서 보통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붙임] 〈마술사〉, 〈요술사〉는 남북에서 모두 쓰는 말이다. 다만, 사람의 손재간과 기자재 조작으로 사물 현상을 시각적으로 달리 보이게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남에서는 '마술사', 북에서는 '요술사'라고 한다.

요술사(妖術師)

① =마술사①.
② =마술사②.
[붙임] 북에서는 교예예술의 하나로 '요술' 분야가 있으며, 2001년에 조선요술협회를 설립하여 '요술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수준 높은 요술 공연을 한다고 한다.

《겨레말큰사전》 원고의 뜻풀이를 깁고 더하는 일은 뜻풀이의 개념적 오류나 표현을 수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사전과 말뭉치, 북한 자료를 살펴보며 남북의 언어 차이를 찾고 실제 쓰임 등을 확인하여 보다 풍부한 남북의 언어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끙끙대는 날이면 나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북측의 편찬원들을 떠올리게 된다. 공동회의가 재개되면 북측 편찬원들과 함께 그동안 쌓아 두기만 한 여러 궁금증들을 속히 해소하고 싶다. 오늘도 '사전 편찬실'에서 묵묵히 사전 원고와 씨름하고 있을 남과 북의 '사전의 마술사들'과의 빠른 만남을 기대해 본다.



권혜진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사업회에 입사해 현재 편찬1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글 안상학 시인

안동말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낱말들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주로 나와 관련이 있었던 낱말들이다.

텀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자주 들었던 말이다. '텀털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다. 대체로 야무지지 못하고 덤벙거리는 내 행동거지가 못마땅할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코흘리개'를 안동서는 '코찔찔이'라고 한다. 코를 늘 달고 산다. 내가 그랬다. 듣자 하니 유년시절을 안동에서 보낸 이재명 대통령도 초등학교 다닐 때 코를 많이 흘렸다고 한다. 코를 훔치는 방법이 여럿 있을 텐데 하필이면 나와 같은 방법을 썼다는 기사를 봤다. 바로 코를 옷소매로 닦는 방법이다. 당연히 소매가 반들반들. 그러나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소매로 닦은 코를 겨드랑이에 가져가서 한 번 더 닦았다. 보이는 소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겨드랑이까지 반들반들했다. 며칠 더 입으면 새까만 윤기가 더해졌다. 그쯤 되면 딱딱해져서 더 이상 코를 닦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면 긁히기 십상이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텀털이'라고 불렀다. 아니, 놀려댔다.

형제끼리 신발을 사도 내 신발이 먼저 떨어졌다. 형은 그런 나를 또 '텀털이'라고 부르며 꿀밤을 먹였다.

진물

'진상'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물'은 다르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 어딘지 모르게 빈구석이 있고 놀기 좋아하며 밉지 않은, 짓궂은 데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술이 빠져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물'이라고 부른다. 후배 한 녀석이 나를 포함해서 가까운 몇몇을 '안동의 4대 진물'이라고 놀려댄다.

선친은 술 배달을 했다. 그중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계 모임을 했다. 계 이름이 '진물계'였다.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진물계에서 거울을 선물했다. 큰 거울 상단에는 '祝 入宅(축 입택)', 하단에는 '眞物契 一同(진물계 일동)'이 적혀 있어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난다.

선친은 마을이나 집안의 궂은일을 도맡아 했다. 노래도 잘했다. 젓가락 하나로 온몸을 사용해 갖은 악기 소리며 좌중의 흥을 돋우었다. 유머 감각은 따를 자가 없었다. 동네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놀러 갈 때도 아버지 일정에 맞추었다. '안 씨 안 가면 무슨 재미로 가냐'며 이구동성이었다. 선친은 술로 돈을 벌었지만 술을 즐기기도 했다. 그런 선친께 술을 배웠다.

스물두 살 여름방학 때였다. 모처럼 집에 갔다. 감나무 그늘에 놓여 있는 평상에 앉아 점심을 먹는 자리였다. 막걸리를 한 잔 마시던 아버지가 대뜸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야야, 이젠 너도 술 한 잔은 해야지?"

"아뇨, 저 술 못 마시니더."

나는 이미 술을 마시는 입장이었지만 못 마시는 척 두어 번 사양을 했다. 그러자 선친은 옴짝달싹 못할 말로 술잔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야야, 아바이는 술 일고여덟 말 짊어지고 말구리 재뜨박도 올라가는데 니는 내리막에 물 한 잔 못 내리나?"

그날부터 꼼짝없이 아비 앞에서 술 마시는 아들이 되고 말았다. '진물'의 대를 잇는 순간이었다.

백바꾸

아마 운동장 트랙을 백 바퀴 돈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이리저리 쏘다니거나 자주 시내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시껄렁하게 노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 이 술집 저 술집을 전전하거나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온갖 참견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중학교 삼학년 무렵의 어떤 친구 별명이기도 하다. 그는 유행에 민감하여 나팔바지, 쫄대바지, 당꼬바지, 배꼽바지를 때맞춰 차려입었다. 키도 크고 잘생긴 얼굴에 운동도 잘했다. 깡다구도 좋아서 싸움도 지렸다. 새 옷을 입으면 시내로 진출해서 여학생들이 모여 있을 법한 곳을 찾아다니며 멋을 부렸다. 동네 친구들은 그를 '백바꾸'라 불렀다.

나중에 그는 안동 역전파출소에서 청원경찰 비슷한 것을 했다. 정식 경찰은 아닌데 비슷한 제복을 입고 한껏 멋을 부리고 다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을 돌았다. 아마 하루 백바꾸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백바꾸는 충분했을 것이다.

스물 예닐곱 때였을까.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맨자구

나는 어려서 낙동강변 마을에 살았다. 그때만 해도 강은 희고 드넓은 백사장을 맑고도 푸르게 흘렀다. 은어, 메기, 붕어, 수루메기(갈겨니), 먹피리(피라미 수컷), 동자개, 맨자구(모래무지) 등 수도 없이 많았다. 지금은 4대강 사업

으로 백사장도 강물도 사라지고 봇물만이 컹(그득)하다.
우리는 모래무지를 '맨자구'라고 불렀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게도 붙여 불렀다. 주로 일머리가 없어서 일 처리가 엉뚱하거나 융통성이 없어서 곧이곧대로 하다가 손해만 보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에서 혀를 차며 한마디 한다. "맨자구 같으니라고." '바보'나 '숙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한다. '맨재기'라고도 한다.

못때기

성격이 몹시 좋지 않고 고약한 것을 '못되었다'라고 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이 있다. 다 커서는 머리에 뿔이 나야 마땅한데 엉덩이에 뿔이 나서 되겠는가.
안동에서는 '못된'을 '못땐'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행실이 못된 아이들을 '못때기'라고 한다. "저 아이는 참 못땠어, 참 못때기야."
젊은 시절, 내 여자 사람 친구 중에는 '못때기'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있었다. 좀 쌀쌀맞게 생겼으며 조금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를 지녔다. 그러나 이 점을 빼면 그다지 '못땠다'고 할 만한 구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쁘기까지 했다.

자부래미

반쯤 뜬 눈인지, 반쯤 감은 눈인지, 하여간 부처의 눈같이 잠이 오는 듯한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늘 졸려서 반 눈을 뜨고 잠을 자는 듯한 눈을 지닌 사람을 '자부래미'라고 불렀다. 또한 아예 잠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안동말로 '졸린다'를 '자부랍다', '잠보'를 '자부래미'라고 한다.
안동말의 보고라 불리는 권정생 소설『한티재 하늘』에도 등장한다. "눈꺼풀이 처져 있어 언제나 눈을 감고 있는 듯이 보여 자부래미(잠보)라는 별명을 가진 박서방"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속이 깊고 의로운 사람이 많다. 박서방도 위험을 감수하며 총살당한 의병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뒷산에 묻어준다.
내 아는 후배도 이런 눈을 지녔다. 꼭 부처의 눈을 닮아서 반쯤 감은 듯 가늘면서도 길고 서늘한 눈매였다. 그는 오래전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만화가 고행석이 창조한 '구공탄'이라는 인물의 눈이 꼭 그렇다. 자부래미다.

허패

'허패'는 한 마디로 힘이 약한 사람을 말한다. 딱 보기에도 힘이 약해 보이거나, 허우대는 멀쩡한데 힘이 약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사내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다. 시골에서 시내로 전학을 갔다. 전학생을 군기 잡으려고 텃세 부리는 친구가 있었다. 키가 크니까 혹 싸움까지 잘하나 싶어 애초부터 기를 눌러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싸움을 걸어왔다. 태권도를 배운 친구였다. 난 싸움을 몰랐다. 그 친구가 화려한 태권도 자세를 잡고 팔짝팔짝 뛰었다. 난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상학이는 허팬가 봐."

여기저기서 쑤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싸울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항복을 받은 표정으로 의기양양했다. 난 부끄러웠다. '허패'라는 말은 어린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

어느 날 반 대항 축구대회가 열렸다. 우리 반이 지고 있자 담임 선생이 나를 교체 투입시켰다. 키가 크니까 뭔가 좀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공을 차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난감했다. 공이 내 앞에 떨어졌다. 나는 멍청하게 서 있었다. 당연히 공을 빼앗겼다. 바로 교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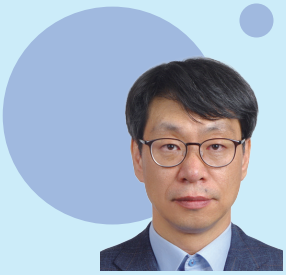
이 두 번의 수모는 나를 운동에 미친 놈으로 만들었다. '허패' 소리 듣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그런데 웬걸. 무술과 축구는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공만 보면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 이소룡 사진을 붙여 놓고 피 터지게 쌍절곤을 돌렸다. 덕분에 몸은 많이 단련되었다. 그 후로는 허패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알고부터 운동과는 멀어졌다.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때 길러놓은 체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사람을 가리키는 안동말로 두대바리, 터구, 무종이, 춤물이, 어뱅이, 거무, 걸버생이, 여시, 퐁신, 꿉배기, 뺀대가리, 빠꼼질랑이, 똥걸레 등 많이 있다.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안상학

시인. 1962년 경북 안동 태어나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남아 있는 날들은 모두가 내일』,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 『아배 생각』, 『안동소주』 등이 있으며, 동시집으로 『지구를 운전하는 엄마』 등이 있다. 권정생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마중물

글 김강출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올여름은 여느 해보다 훨씬 더웠다. 지금이야 성능 좋은 에어컨이 있어서 그 무지막지한 무더위를 그나마 견뎌 낼 수 있었다지만 한때는 선풍기마저도 사치였던 시절이 있었다. 선풍기도 귀하던 그 시절, 필자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집에 수도가 없어서 펌프(문화어로는 뽐프) 물로 등목(문화어로는 등미역)을 했는데 그 당시 등목은 더위를 쫓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펌프질할 때 물이 안 나오면 물 한 바가지를 떠다 펌프 안에 붓고 신나게 '뿌걱뿌걱' 펌프질을 해대면 신통하게도 물이 콸콸 쏟아졌다.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올 때 펌프에 붓는 물을 '나중에 나올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는 뜻에서 '마중물'이라고 한다.

'마중물'은 《조선말대사전》(2017)에 올라 있지 않지만 북측 용례는 확인되는 말이다. 또 현재 남한의 일반사회에서는 "한중 교류 마중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처럼 기본의미 외에 비유적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겨레말큰사전》 원고에는 "어떤 좋은 결과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더하고 북한의 인용례도 함께 넣어서 '마중물'이 남북한이 함께 쓰는 말임을 보여주었다. 이만하면 남북한 언어문화 통합의 '마중물'로서 《겨레말큰사전》 '마중물'의 뜻풀이로 어떨지? 물론 다음 교열자의 손을 거쳐 더 좋은 원고로 재탄생하겠지만….

장마

글 박샛별 겨레말큰사전 선임편찬원



올해는 장마가 왔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지나가 버렸다. 많은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장마가 점점 더 짧아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어쩌면 우리는 장마를 직접 경험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나는 '장마'라는 말이 당연히 한자어일 것이라 생각했다. '마'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길게 내리는 비이니 '장'은 '길 장(長)' 자일 것이라 짐작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전을 찾아봤다가 '장마'의 원어가 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장마를 고유어라 할 수 있을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장마'의 어원은 '댱마←댱[<長]+맣'로, 한자어가 고유어화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장마'라고 하면 어릴 적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여름철 농번기에는 늘 바쁘셨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은 항상 텅 비어 있었고 나는 그 시간이 외롭고 싫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논으로 일을 나가지 못한 부모님이 집에 계셨고, 어린 나는 그 사실이 마냥 기뻤다. 나는 장마를 기다렸고 장맛비가 반가웠다. 그렇게 기다리던 장마가 어른이 된 지금은 달갑지 않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해야 하는 나에게 장맛비는 그저 몸과 마음의 피로감을 더하는 존재일 뿐이다. 어느새 나는 장마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어른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마가 기후 변화로 사라진다고 한다. 여름이면 으레 찾아오던 장마가 사라진다고 하니 장마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마치 그 시절이 없어지는 것처럼 허전한 마음이 든다.



추석달

글 남초록 겨레말큰사전 책임편찬원

드높고 푸른 하늘 사이로 아침저녁 살랑살랑 부는 선선한 바람,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산자락과 둘레길, 길가에 핀 알록달록 어여쁜 꽃들까지. 바야흐로 가을이다. 주위의 풍경들이 온통 가을빛으로 물들고, 한여름을 잘 견딘 햇곡식과 햇과일들이 눈에 띄는 이맘때면 머지않아 맞을 겨레의 명절 추석(秋夕)을 떠올리게 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이라는 뜻의 추석은 시기적으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보름날 밤'을, 상징적으로는 '수확의 결실과 기쁨', '풍요', '감사'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일까? 추석 하면 '한가위 보름달', '추석 보름달', '가윗달'로도 불리는 '추석달'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추석달'은 '추석에 뜨는 보름달'이라는 뜻으로, 현재 이 단어는 북의 사전에만 실려 있지만 쓰임과 용례를 살펴보면 남북이 공통으로 함께 쓰는 말이다. 분단의 세월만큼 남북의 추석 풍경은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석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추석 달맞이 풍경과 그 풍경 속에 담긴 추석달의 상징적 의미는 남북이 결코 다르지 않다. 추석달은 풍요와 결실의 상징이며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내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맞이를 하게 된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남북의 밤하늘에 뜬 크고 밝은 추석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 간절한 소원을 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가비떡

글 이길재 겨레말큰사전 수석편찬원



무릇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보름달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해도 송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송편'이란 이름은 송편을 찔 때 솔잎을 깔고 찌는 방법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나라 양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에 식구들이 죽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모습은 이젠 세월의 뒤안길로 점차 잊혀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름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다.

송편의 명칭은 그것을 찌는 방법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그것의 모양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한다. 송편의 방언형 '생팬, 생펜, 생편, 성편, 센펜, 셍펜, 송핀, 쇙편, 쇙펜, 쇵편' 등은 '송편'의 변한말들이다. '솔벤, 솔펜' 등은 제주말 '솔편'이 변한 것인데, 한자어 '송(松)' 대신에 고유어 '솔'이 쓰였다.

강원도의 '조개떡'이나 함경도의 '조가비떡', '조개비떡'은 떡의 모양이 조개를 닮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경상남도에서 쓰이는 '귀떡', '기떡'은 모양이 귀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바지게떡'은 그 모양을 '바지게'*에 빗댄 것이다. 비록 소박한 이름들이지만 이름을 짓는 방식에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 좋다. 올 한가위에는 식구들끼리 빙 둘러앉아 송편을 빚어보면 좋을 것 같다.

* 바지게: 발채(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

강준석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감사

공동회의 재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

강준석 상임감사는 31년 동안 통일부의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감사담당관실, 국립통일교육원 등을 두루 거치고 지난 2월 21일 사업회 감사로 임명됐다. 그는 통일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018년 2월 27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갔다.

독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에서 31년의 근무를 끝내고 지난 2월에 사업회 감사로 왔습니다. 공무원 정년보다 2년 6개월 빨리 퇴직했는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심 같은 것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이 저를 너무 공무원스럽게 만들어 놓아 새 조직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업회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 공직 경험이 직원들과 사업회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회에서 근무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되어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과 공동 편찬작업이 중단되며 인력은 축소되고 예산은 동결되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었는데도 편찬사업을 지속하고 사업회를 잘 이끌어 오신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완고하게 내세우며 남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며, 사업회도 공동회의 재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2018년 2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강준석 상임감사이다.



↑ 2018년 11월 2일, 남북체육분과회담 개최를 위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방문했다. 사진 오른쪽이 강준석 상임감사이다.



↑ 2015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개성 고려성균관에 방문했다.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회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남북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회담 업무를 담당할 때 힘들긴 했지만, 통일부에 근무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남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진전된 바가 없어 큰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다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회에 부임한 첫해, 첫행보로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보다 조금 더 향상시키자! 이것이 근무하면서 항상 갖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 업무는 직원들이 처리한 업무의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회가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감사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소개하고 싶은 '겨레말'은?

'슴슴하다'. 요즘은 제가 반찬을 만들거나 김치찌개를 끓여서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곤 합니다. 아내는 제가 한 음식을 먹을 때 간혹 "좀 슴슴하고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소한 말에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2017)을 찾아보니, 북한에서는 음식이 싱거울 때, 또는 글이 절정이 없이 잔잔하게 쓰였을 때, 어떤 일이 인상적이지 않고 멋이 없을 때 '슴슴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남에서는 비표준어이지만 '슴슴하다'가 단순히 싱거운 것 외에도 감칠맛을 표현하기 때문에 '심심하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내의 입에서 '슴슴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반찬을 만들며, 남북 관계도 이 슴슴한 상태를 벗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25 겨레말 소식

제8회 사업회 학술 연찬회 개최



사업회는 6월 25일 이현주 인천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초청해 '전문용어와 사전'을 주제로 제8회 학술 연찬회(아래 '연찬회')를 개최했다. 핀란드 알토 대학교와 프랑스 파리7대학에서 각각 석사와 언어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전문용어와 사전 편찬을 연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전문용어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연찬회에서 전문용어의 개념과 체계를 설명하며 해당 분야 학문의 지식 체계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문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전문용어 연구의 역사와 동향, 특히 전문용어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오이겐 뷔스터(E. Wüster)의 활동을 통해 일반사전학에 대비되는 용어사전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의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작업 사례와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전문용어사전(용어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문용어 사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의문의 명료성과 수월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업회는 지난 2022년부터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데 학술적 자문을 구하고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 사진

사업회, 2025 한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공동주최



사업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강원대학교에서 한국어학회,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과 함께 2025 한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를 공동주최했다. '해방/분단 80년, 한국어/조선어 연구의 통합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남북한의 국어사전과 어문규범, 문법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 시점에서 남북 언어 실태와 남북 언어 연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새로운 담론의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사업회에서는 최성규 선임편찬원이 '해방/분단 80년 남과 북의 국어사연구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고대영 편찬3부장이 '해방/분단 80년, 남북 어문규범 연구의 (탈)식민성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김주성 교수(해군사관학교)의 발제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업회는 매년 개최하는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과 더불어 앞으로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학계 공감대를 높이고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학술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회 블로그
겨레말 현장

2025년 겨레말문화학교 가을 학기 정규 강좌 운영



지난 8월 11일, 사업회는 '2025년 겨레말문화학교' 가을 학기 정규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가을 학기는 대학(원)과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남북 언어'와 '남북 교류'를 주제로 지난 8월 22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1월까지 강서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경대학교 등 4곳에서 강좌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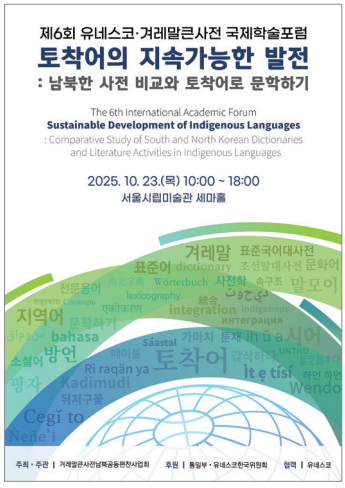
사업회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봄 학기 정규 강좌에는 경희중학교, 배재대학교,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홍익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등 총 7곳, 174명의 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해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성과와 남북 교류 경험을 나눈 바 있다.

이 밖에도 학교 동아리, 교과 수업, 평화·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남북 언어문화 학습 자료〉는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상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업회는 남북 언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남북 교류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2023년부터 겨레말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문화학교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최



사업회는 오는 10월 23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주제로 하는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아래 '포럼')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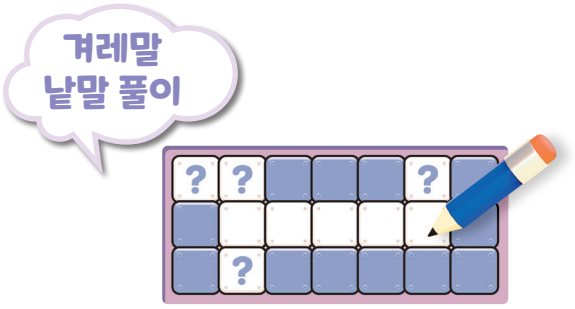
이번 포럼은 1일간 진행되며 1부에서는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남북한 사전 비교'를 주제로 남과 북, 중국 연변과 일본의 (한)국어 사전 비교 연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해외 동포어를 집대성해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방향을 모색해 본다.

2부에서는 '토착어의 발전을 위한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주제로 시어, 소설어와 토착어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 이어 도종환 시인과 정지아 소설가와의 대화를 통해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토착어 창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업회는 지난 2021년부터 UN의 '세계 토착어 10년(IDIL, 2022~2032)'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사회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해 매년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영상과 '토착어로 문학하기' 아카이브 영상은 11월 중 사업회의 유튜브 채널 겨레말TV와 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국제학술포럼
공식 홈페이지



겨레말 낱말 풀이는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http://dic.gyeoremal.or.kr)'와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에 수록된 단어로 제작되었습니다.

① 외래어 '배드민턴'의 북녘 표기.

예) 공원 저쪽에서 떠들썩하며 {○○○○을} 치는 청년들이 있을뿐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목란꽃향기》(북)

② '줄다리기' 놀이를 북녘에서 이르는 말.

예) {○○○○○에서는} 대체로 키작은 사람은 앞에 세우고 키큰 사람은 뒤에 세워 팀의 힘균형을 보장하도록 하였다.《대중민족경기》(북)

③ '기타리스트'를 가리키는 북녘말로 《조선말대사전》(2017)에 처음 수록되었다. 북녘에서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수(手)'가 쓰인다.

예) 애젊은 {○○○는} … 능란한 솜씨로 기타줄을 골라치기 시작했다.《굴착기운전공》(북)

④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경테인 '뿔테'를 북녘에서 이르는 말. '합성수지로 만든 테'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예) 자기가 끼고있는 안경이 {○○○라는것을} 감감잊고 뜨거운 로속에 들어갔던것이다.《불》(북)

⑤ 외래어 '버스'의 북녘 표기. 된소리가 나는 외래어에서 쌍자음 표기가 많은 것이 북녘말의 특징이다.

예) 처녀는 지하철도나 {○○를} 탈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걸어갔다.《바다의환상곡》(북)

⑥ 외래어 '스케이트'의 북녘 표기.

예) 몇달씩은 꽁꽁 얼어있어 호수는 {○○○를} 타는 사람들로 붐비군 하였다.《푸른 잔디우에서》(북)

⑦ 외래어 '케첩'의 북녘 표기. 《조선말대사전》(2017)에서는 이 단어를 '도마도 같은 것을 갈아서 볶은 다음 조미료를 쳐서 찐 료리'라고 풀이하고 있다.

① ②							
				⑤	⑥		
					⑦		
③		④					
						⑧	
⑩ ⑪				⑨			

⑧ 외래어 '에너지'의 북녘 표기. 북녘에서는 러시아어나 독일어에서 차용한 외래어를 사용하면서 남북 표기가 달라졌다.

예) {재생○○○○} 특히는 풍력과 태양빛에 의한 전력생산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세계과학기술발전동향에 대하여》(북)

⑨ 나라이름 '헝가리'의 북녘 표기. 본래 '웽그리아'라고 부르다가 1990년대 말, 현지어의 발음에 가깝게 적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표기'로 바꾸어 적고 있다.

예) {○○○의} 수도 부다뻬슈뜨에는 수수께끼박물관이 있다.《세계의 특이한 박물관들》(북)

⑩ '별똥별'의 북녘말. 한자어로 '류성'이라고 표기하며 고유어로는 2음절의 '이 단어'로 부른다.

예) 뭇별이 총총한 밤하늘 저 멀리에서 {○○} 하나가 긴 불꼬리를 끄을며 떨어졌다.《통일아리랑》(북)

⑪ 남북이 모두 쓰는 단어인데 의미·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사. 남녘에서는 '그다지, 별반'의 뜻으로 부정을 뜻하는 말과 어울려 쓰이며, 북녘에서는 '따로 특별히'라는 뜻으로 긍정을 뜻하는 말과도 어울려 쓰이는 것이 다르다.

예) 송이마다 구슬같은 비방울을 머금은 다리아꽃송이들은 {○○} 아름답다.《젊음을 자랑하라》(북)

정 답

①바드민톤	②바줄당기기	③기타수	④수지테
⑤뻐스	⑥스케트	⑦케챠프	⑧에네르기
⑨마쟈르	⑩별찌	⑪별로	

2025년
함께 만드는 《겨레말》

2025년 겨레말 가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총 다섯 분께 정해진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참여

북한의 신어(新語)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단서! 21쪽 〈기획특집〉에 정답이 숨어 있어요!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꼭지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 방법

보내실 곳: gyeoremal@gyeoremal.or.kr
참여 기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 당첨자에게는 응모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며 채택된 독자 의견 중 일부는 다음 호에 실립니다.

겨레말 독자 이벤트♥

2025년 봄호 독자 의견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회의는 올해로 몇 주년을 맞았을까요?

정답: 20주년

[겨레말 초대석] 조남호 남측편찬위원회 위원장
조남호 남측편찬위원장님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말이 있듯 서로 잘 공감하고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밥을 먹는 자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북이 하나의 언어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라는 가치관으로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로 이견이 적지 않겠지만, 그 간극을 줄이고 중지를 모으는 데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유○범

[기획특집]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사명
남북이 분단 이후 달라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오랜 시간 협력해 왔다는 것과 '나비와 나방', '가구와 가전' 등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는 남북 언어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덕분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단순히 단어만 모으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공동으로 사전을 만드는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_이○훈

[기획특집] 통일로 가는 디딤돌 《겨레말큰사전》 만들기 20년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언론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달라지는 현실을 다룬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에 《겨레말큰사전》이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어, 단순히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_김○연

[기획특집] 사진기록관 – 한눈에 보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회의 20년
'기획특집'의 사진기록관을 통해 지난 공동회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각 회의에서의 다양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을 보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소중한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겨레말큰사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_장○익

[남녘말 북녘말]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남북 언어: '가마치'와 '누룽지'의 추억
처음 '가마치'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뜻을 바로 떠올리기 어려웠지만 글을 읽으며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끓여주셨던 '누룽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북이 똑같이 해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오랜 분단 상황이 단절시킨 것이 비단 땅 위 경계선뿐만이 아니라 말과 문화, 기억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우리 민족의 감성과 정서를 다시 잇는 연결고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말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 봅니다. _김○혜

제6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The 6th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

2025. **10. 23.** 목 10:00 ~ 18:00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 International Academic Forum ·

온라인 사전등록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